

# 광주·전남지역 주요 정당 휴일 총력 유세전

### ‘종교·등산·스포츠’...인파 모인곳은 어디든 방문 “정권심판·일당독점 타파·기적의 1석” 지지호소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광주·전남지역이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본 선거를 3일 앞둔 7일 여·야 주요 정당들이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각 정당 후보들은 선거 마지막 휴일을 맞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종교인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객, 등산객, 나들이객 등 인파가 몰린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동남갑 후보와 조인철 서구갑 후보, 정준호 북구갑 후보, 전진숙 북구를 후보, 박관택 광산갑 후보는 교회와 성당 주변에서 종교인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했다.

안도걸 동남을 후보는 무등산 아래 증심사 일대에서, 양부남 서구를 후보는 풍암체육공원 거리에서 각각 등산객과 운동하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했다. 민형배 광산을 후보는 첨단체육공원에서 열린 축구대회를 방문해 생활체육인들과 교감하며 정권심판론에 힘을 보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공원과 종교시설 등을 방문해 “광주의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를 깨트려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은식 동남을 후보는 증심사 입구에서 집중 유세를 했고, 하현식 서구갑 후보는 동천동 광주전변 벚꽃길에서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김윤 서구를 후보는 풍암호수공원에서, 김정명 북구갑 후보는 군왕봉체육공원을 찾아 산책을 나온 유권자들의 손을 잡았다.

양종아 북구를 후보는 중의공원과 패밀리랜드, 안태욱 광산을 후보는 첨단호수공원 일대에서 봄날씨를 만끽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광주 북구를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물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당은 운암동 구 예술고 사거리와 신용교차로에서 당원 등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집중



제22대 총선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유세를 했다. 진보당은 “광주에서 기적의 1석을 만드는 것은 광주의 자존심이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지름길이다”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광산을 후보는 오후 1시 20분 기아타이거즈 야구경기가 열린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 후보는 오후 6시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주말 집중유세를 했다. 이 후보는 “광주에는 큰 인물 큰 정치가 필요하다”며 “민주세력을 재건하고 호남을 위해 인생 마지막

을 불태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서구갑 후보는 오전에 교회와 성당 일대에서 종교인들과 만남을 가진 뒤 오후에서 선거차량 유세에 이어 풍금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는 등 눈코 뜰 새 없는 휴일 하루를 보냈다.

같은당 김용재 광산을 후보도 오전 7시30분부터 성당, 교회, 축구클럽, 다시 성당과 교회, 축구대회를 연이어 방문한 뒤 유세차량 선거운동과 수완동 집중유세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서선욱기자



### 국힘 “사상 최고” 사전투표 민주당 향한 분노·심판

민의힘은 7일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두고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화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총선의 국민적 열원이 모여 국민의힘을 향한 결집을 이룬 것”이라며 “막말과 편법, 폭수, 범죄가 일상인 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말하는 세력 간의 대결을 두고 미래 세력인 국민의힘에 소중한 한 표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4년 내내 입법 독재와 방만 국회로 민생마저 내팽개치더니, 오로지 당 대표 맞춤형 공천으로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 혐오의 막말을 들어야 했고 그들만의 부의 대물림을 봐야 했다”며 “선거를 3일 앞두고 논란의 후보들은 민주당의 방치 아래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박 공보단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이같이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량하고 상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투표율을 두고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들이 낮부러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는 역대급 비호감 총선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상식 있는 주권자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민심의 폭발’, ‘주권자 혁명’을 통해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 이재명과 조국으로 대표되는 ‘4류 만나니 정치’를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시길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권성동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이며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오직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으로 보서는 투표함 개함하기 전까지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저를 비롯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뉴시스

## 한동훈-이재명-조국, 물고 물리는 ‘공방전’

### 이·조 심판론 전면 내세운 한동훈, 후보들 공격 집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며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며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한꺼번에 타격하며 검찰 독재정권 종신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7일 한동훈 위원장은 대전 집중유세 현장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민주당이 비호한다”면서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다. 성희롱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강한 발언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자 선거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양문석, 공영운, 김준혁 후보의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당은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는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부도덕한 후보를 공천한 이 대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를 집중 비판했고, 최근에는 ‘사회연대 임금제’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에도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교 같은 발상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더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닌 임금을 내리면, 소비는 누가하고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나”면서 “대한민국은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살게 된 나라”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연일 정권심판론을 꺼내 들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이재명

명주’로 명명하고 지원 유세 현장마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추가조작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대과 한 단 875원’ 발언을 고물가·민생고 문제로 연결시켜 “경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거친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위원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서 “충직하지 않은 일꾼은 쫓겨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책임 물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며 “투표 포기하는 곧 민생 포기”와 같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4월10일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

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우리는 숭배하는 우상을 쫓거나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라며 “일꾼이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나쁜 생각을 일삼으면 책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각자 선택에 따라 포기하지 마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 받는다” 플라톤의 말”이라며 “어떤 쪽이든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종식론”을 앞세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다.

조 대표는 창당과 함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 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최측근인 한 위원장을 정권심판론의 상징으로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표가 더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9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슬비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